

# 임실군, 6천억 예산시대 '성큼'

### 제1회 추경예산안 5452억원 확정... 주민 삶의 질 최우선·국민복지 증진·미래 경쟁력강화 '중점'

임실군이 주민을 최우선하고 삶의 질 중심의 올해 첫 추경예산 5,452억 원을 최종 확정, 6천억 예산시대로 성큼 다가갔다.

군은 군민복지증진과 미래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전체 5,45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최근 제3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확정된 예산은 당초예산 5,117억원보다 335억원(6.55%) 증가한 5,4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3억원 증가한 5,176억원, 특별회계가 2억원 증가한 276억원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체육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원과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6억원, 군립도서관 인센티브 및 체험형 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체육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원과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6억원, 군립도서관 인센티브 및 체험형 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이 추가됐다.

6000만원 등의 예산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군은 민선 7기에 3년 연속 5천억원 예산시대를 맞은 임실군은 주민 중심형 삶의 질 향상과 주요 관광개발사업, 주민편의형 SOC사업 대거 추진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줄줄이 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취임 당시 불과 2,800억 원 대였던 전체 예산을 임기 내 반드시 5천억원으로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은 물론, 이제는 6천억원대 예산실현도 가능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관광분야에서는 육정호 및 사선대 관광조성사업에 8억원, 성수산 관광 개발사업 및 상하수도 확장사업

에 12억원, 임실치즈팰런드 내 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군의 관광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에서는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5억원, 수도작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원, 고품질 육묘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의 예산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군의 농축산업 경쟁력 또한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6천억 예산시대를 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전국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

### 7년 연속 수상 '쾌거'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올 수상은 2016년부터 7년 동안 연속 수상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민선7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의 최우수(SA) 등급 획득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여서 더욱 뜻이 깊다.

(Pass/Fail)등이며, 평가등급은 5개(SA, A, B, C, D) 등급으로 5개 항목 합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지자체에 최우수 등급인 SA를 부여했다.

남원시는 ▲폭격있게 육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스마트 농업 풍요로운 농촌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가 지난 12월부터 민선7기 공약이행정보를 지자체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1차 평가를 하였고,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료보완을 통해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이행지도

이중 목표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은 30건이며, 저시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 일부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심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관리에 시민참여를 장려하며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제14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

순창군이 지난날 3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4기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된 11명의 청소년에게 황승주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 발달에 근거한 참여기구로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에도 참여하며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장인 황승주 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활동을 기대하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의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남원시의회는 지난날 31일부터 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원)를 열고 남원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622억 대비 461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13,583억2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61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9,350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백만원이 증액된 732억 5천7백만원이다.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 부위원장에 최현규 의원, 윤기환, 윤지홍, 노영숙, 손준열, 박동욱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강성원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 1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임실군 첫 무소속 3선 군수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 "중단 없는 군정운영·막힘없는 임실 발전"

### 심민 임실군수, 무소속 첫 3선 군수 출마 선언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달라는 군민 뜻에 따라"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 1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임실군 첫 무소속 3선 군수 도전을 선언했다.

심 군수는 "임실군 첫 3선 군수라는 담대한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8년간 임실군과 임실군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리라'는 많은 군민들의 뜻에 따

라 민선 8기 임실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처음 민선 6기 군수에 당선된 뒤 군민들의 한결 같은 믿음 '재발 무사히 임기 채우는 군수가 되어달라'는 외침이었다"며,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의 고리를 끊고 군민들과 약속을 지켜내며 민선 6기에 이어

서 민선 7기 군수에 당선 되어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예산 8,000억 시대를 비롯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오수지역 세계명진테마랜드 조성, 오수와 임실 제2농공단지에 첨단 미래공장 유치 1,000개 일자리 창출 오수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선7기와 7기에 추진한 정책들을 중단 없이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녹색도시로 탄소중립 실천할 것" 공약

###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도시숲'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7대 정책비전 발표와 함께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소개하며 네 번째 공약 '경제·산업 부흥정책' 내 '신재생에너지 지원확대' 일환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공약했었으며, "시민들의 의견과 적정한 곳을 선택해 광안루원과 같이 도심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남원시 도시숲등의관리계획과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기존의 조경지역은 관리운영에 역점을 두는 대신 신규 개발지는 장기적인 안목의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의 양과 질을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이정린 도의원, 남원지역 도의원 재선 도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린 도의원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남원시 선구 도의원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남원과 전주를 수도 없이 오가며 주민 목소리를 전라북도 행정에 전달하고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 계획 수립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의 중점 사업인 문화예술지원과 역사·향토문화 보존·스포츠 등 호인들의 운동하기 좋은 환경 개선사업에 힘써왔고, 재난 피해복구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민운동에 뛰어들며 사회운동에 눈을 뒀고, 시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배웠으며, 도의원으로 남원발전의 정확한 맥을 짚을 수 있게 되었고, 도의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중진 같다는 평을 들으며 도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초선임에도 상임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원예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확대

남원시가 금년도에도 예산 7억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대표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원예 농가들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예산과 달리 지원 하는 유형과 품목 확대 및 변경을 통해 원예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작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설하우스 유형은 기존 2종 단동 시설하우스(점적+스프링클러 포함)에서 1종 단동 시설하우스(점적+스프링클러 포함)까지 확대, 재배 작목도 원예작물에서 과수·특작분야까지 확대 지원하며, 시설하우스 설치 시 원수에 필요한 중형관정 지원사업을 작년 이어 계속 지원한다.

철강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증가를 완화하고자 기존 지원단가를 m당 2종 단동 기준 2만3,000원~2만5,000원에서 2만8,000원~3만원으로 인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3억원 확보

###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식품분야 3개·관광분야 1개 사업

순창군이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 6개 시군 중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운영 내실화와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실시했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다.

데 4개 사업 모두 체계적이고 적시에 사업이 잘 추진되며 지역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동부권 발전 평가 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물러드는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4개 사업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얻었다.

# 남원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 내려

남원시는 지난날 31일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 배 등 과수 농가는 의무적으로 약제를 뿌려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방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견전포복 사용 및 유통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규양제거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등 10개 항목이다.

# 임실군, 옥정호 수질보호 '지킴이' 활동 나서

임실군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위해 광역 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오염원 사전 차단 및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지역주민 28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상수원 내 불법 어로행위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 처리 등 수질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통해 11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옥정호 광역 상수원 수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후이질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조성, 요산공원 광장 정비,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및 주차장 조성 등 주요 관광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420m의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붕어섬 개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옥정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정호의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것을 대비하여 구역별로 불법행위 감시와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한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평가는 사업성과지표와 내부행정관리지표, 고객 설문, 평가 개선도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순창군이 각 항목별 평가에서 고른 점수를 얻으며 최종 함께 98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 한 개 시군을 뽑는 A등급을 획득하고 3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식품분야 3개 사업과 관광분야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황승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산업과 강천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식품과 관광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발효·미생물 등 식품분야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과수 가지·열매·잎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붉게 변한 뒤 죽어가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노인 결핵 이동검진 실시

### 노인복지시설서 130여명 대상

임실군이 집단시설 내 결핵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결핵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날 31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구세군역치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진행했다.

이날 결핵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협력해 무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대한결핵협회의

결핵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결핵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검진 실시 후 결핵 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 연계를 통해 일정 시까지 무료 결핵 진료와 투약 관리를 받게 된다.

심 민 군수는 "결핵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2주 이상 마른 기침이 나온다면 꼭 결핵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